

<3강 인트로>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사무엘하 강의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하 6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다윗의 언약’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는데요. 6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성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았고, 7장에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강으로 사무엘하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혹시 성경을 읽지 않으셨다면 잠시 멈추어 읽고 오시면 강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은 전쟁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마치 이겨놓고 싸운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8:1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 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메덱암마를 얻게 됩니다. 사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호수아 때 지중해 쪽에 위치해 있던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등 블레셋의 성읍들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 놓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눈에 가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다윗이 왕이 되자 정복하였습니다. 깊이 들어가보면 전쟁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공격을 받으면 적을 물리치는 전쟁을 해왔지만, 이제는 먼저 선제적 공격을 가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먼저 공격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면 어려워집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다윗이 주변 나라를 공격하고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죄악의 세력과 대항해 정복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말을 ‘죽였다’, ‘멸절시켰다’라는 단어로 설명하지 않고 ‘항복시켰다’, ‘정복했다’는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무엘하 8:1절도 보면 ‘죽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항복을 받고’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빼앗은 메덱암마! 이는 지역 이름이 아니라 ‘모성(母城)의 굴레’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은 가드를 중심으로 가사, 아스돗, 에글론 등 여럿성이 연합한 조직인데, 제일 큰 성 가드를 어머니성으로 삼고 나머지는 모성 주변에서 띠를 둘러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성들은 무너뜨리기 어려운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때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지역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 통치하자마자 제일 먼저 메덱암마를 공격했습니다. 죄의 근본지인 요새를 공격한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의 메덱암마를 정복하고 요단 동쪽에 있는 모압을 정복합니다. 이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롯의 가족은 간신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도망하라하셨지만 불순종하여 굴에 머물게 되죠. 이 때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자녀를 낳는데요. 그 자녀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은 불순종의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뿌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모압을 정복했습니다. 모압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세줄로 세워서 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 주었습니다. 이 말은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장정은 죽이고 여자, 노약자, 어린아이들은 살려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압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사방에서 있는 악의 뿌리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8:3-4절 말씀에 보면

3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4 그에게서 마병 천칠백 명과 보병 이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일백 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유브라데강까지 오게 됩니다. 당시 아람인들은 하나의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개의 소국가로 분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소국이 바로 소바입니다. 소바는 당시 요단 동편과 수리아의 통치권을 놓고 이스라엘과 싸울 정도로 최강의 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하게 되고 소바가 소유하고 있던 수많은 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왜 뒷발의 힘줄, 즉 아킬레스 건을 끊었을까요? 말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을텐데 말이죠. 하지만 다윗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말씀을 기억하고 행한 것입니다.

이에 다메섹에 있던 아람사람들이 소바왕을 돋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람 또한 다윗에게 무릎을 끊게 됩니다. 아람과 소바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악의 뿌리들을 다윗을 통해 제거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정복한 나라에서 은과 금을 얻게 되는데요.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써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왕의 자리를 단단히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원수였던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처단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의 집안에 사랑을 베풀고자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알게됩니다.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과 그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드발은 한 지역의 이름인데요, 초목이 하나도 자라지 못하는 건조한 땅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곳에서 므비보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곧바로 므비보셋을 데려오게 합니다.

사무엘하 9:5-6

5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6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비참하게 건조한 땅에서 숨어 살며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므비보셋, 이 므비보셋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묵상해봅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름을 받고 므비보셋은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았던 그였지만, 다윗을 통하여 은총을 입고 왕의 보호 아래 살아가게 되죠. 우리도 버려질 수 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처음 다윗 왕 앞으로 나아갈 때에 두려웠습니다. 자신을 처단 할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에 너에게 은총을 베풀거란다.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도로 주며, 항상 나와 함께 밥을 먹을 것이다.” 이 말은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노동을 할 수 없는 므비보셋에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줌으로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줍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인생이 한 순간에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구원 받지 못할 백성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9:11-13

11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2 므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13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제 소망의 빛으로 나아가는 므비보셋에게 왜 다시금 그의 아픔을 건드릴까요? 이 말은 철저히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리는 인생을 산 것이죠.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고 하면 우리는 문제 안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문제 가운데 약한자를 강한자로 바꾸어 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절름발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절름발이가 아닌 왕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0장>

사무엘하 1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술취한 사이 두 딸이 동침하여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큰 딸은 모압을 낳았고, 작은 딸은 벤암미를 낳습니다. 여기에 모압은 모압자손의 조상이 되었고, 벤암미는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암몬과 모압은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 다투게 됩니다. 암몬은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로 요단강을 사이에 둔 이웃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통하여 새로운 왕이 된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였습니다.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인데요. 헤세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인애, 자비, 능력,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9장에서 므비보셋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다면 10장에서 암몬의 새로운 왕이 된 하눈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려 했습니다. 선한 의도였죠. 그런데 암몬의 왕 하눈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무엘하 10:3-5

3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격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니

4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불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5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하눈의 신하들은 속지 말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보내는 사절단이 아니라 염탐하려 오려는 신하들이라 조언합니다. 그러자 하눈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왔던 사절단의 수염을 꽉고 의복을 자르라 명합니다.

그 당시에 수염은 남자들에게 자존심의 상징이자,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절단의 수염이 잘린 것이죠. 이것은 머리가 잘린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졌습니다. 매우 수치스러운 장면이죠. 그런데 이것도 모잘라 의복을 중동볼기까지 자릅니다. 당시 의복은 지금의 형태와 달랐습니다. 전부 통짜로 되어 있어 목부터 발목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동볼기까지 잘랐다는 것은 엉덩이가 보이도록 옷을 잘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속옷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러한 모욕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땠을까요? 무척 화가 났겠죠. 아버지를 잃은 새로운 왕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선한의도로 보냈는데 수염을 자르지 않나, 엉덩이가 보이도록 옷을 잘랐습니다.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일단 사절단을 먼저 배려해 줍니다.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 오라고 합니다. 수염이 잘린 채로 궁에 왔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암몬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하여 미움을 받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하 10:6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이만 명과 마야가 왕과 그의 사람 천 명과 돌 사람 만
이천 명을 고용한지라

암몬은 아람 나라의 작은 성인 벨르홉, 소바, 마야가에게 병력을 요청합니다. 총 3만 3천명이 동원됩니다. 이제 암몬과 아람이 한 편이 되어 전쟁을 시작하였고,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요압 장군이 동생 아비새와 함께 참여하기 위해 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람 연합군 3만 3천명이 암몬을 도와 전쟁을 했지만 다윗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패합니다. 결국 퇴각하게 되죠. 이제는 아람 사람은 다윗과 화친을 맺고 암몬을 도와주지 않게 됩니다.

은총으로 시작했던 9장과 10장의 마지막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보게됩니다. 므비보셋은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암몬은 그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 피를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총을 은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부끄러운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곳곳에 은총을 베풀어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다음 강의 안내>

오늘 강의한 스크립트 자료는 강의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하 4장으로 사무엘하 11장에서 13장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강의 들으시기 전 말씀을 읽어보시고 오시면 강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성경을 읽으시거나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만나교회 홈페이지 강의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